

볼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099천km ²	G D P	167억 달러 (2008)
인구	9.69 백만 명 (2008)	1 인 당 GDP	1,720 달러 (2008)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공화제)	통화단위	Boliviano(Bs)
대외정책	반미주의	환율(달러당)	7.24 (2008)

- 남미 내륙국가인 볼리비아는 석유, 천연가스, 금, 은, 주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나, 절대빈곤, 소득불평등 등 사회문제가 만연해 있는 남미 최빈국이며, 세계 제3위의 코카생산국이기도 함.
-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초보적 산업발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경제 펀더멘탈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원국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IMF 등 국제기구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제성장률	4.4	4.8	4.6	6.2	2.8
재정수지/GDP	-2.2	4.5	1.7	3.2	-2.0
소비자물가상승률	5.4	4.3	8.7	14.0	4.3

자료: IMF, EIU

□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 볼리비아 경제는 2006년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조치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 (천연가스, 광물) 수출 호조, 미국으로부터 특혜관세제도 유지, 해외근로자 모국 송금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006~08년까지 4~6%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미국의 안데안무역특혜법(ATPDEA) 혜택 중단, 외국인 투자 감소에 따른 기간산업의 신규투자 위축, 1차 상품 시세 하락 및 해외근로자 모국 송금 급감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및 농산물 수출 호조로 축적된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재정을 근간으로 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실시, 2/4분기 이후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 상승 반전 등에 의해 플러스 성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들어 인플레이 우려 크게 낮아져

- 1985년 최고 20,000%에 달하며 경기불안 요소가 되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화폐개혁, 금리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에 힘입어 1997년 이후 한 자리대로 낮아졌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4~5%대를 기록하며 안정세가 지속되었음.

- 그러나 2007년에는 해외근로자의 송금 유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동성 증가로 물가상승률이 8.7%까지 상승하였으며, 2008년에도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볼리비아 통화 약세에 따른 수입 단가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4%까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 우려가 높아졌음.
- 2009년에는 주요 수입품 가격 하락,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액 축소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소비자물가지수는 다시 한 자리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전환 전망

- 2002년까지 GDP의 9%에 이르렀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의 연료보조금 삭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긴축정책과 세원 증대의 영향으로 2005년에는 GDP의 2.2%로 축소되었음.
- 2006년 5월 1일 천연가스과 석유산업 국유화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관련 정부 재정수입이 급증하여 재정수지도 대규모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에도 공무원 임금 상승, 사회보장 인프라 사업 증가 등의 재정지출 부담에도 불구하고 광물 수출 급증으로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유입되면서 재정수지는 2007년 GDP의 1.7%, 2008년 GDP의 3.2%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경기침체로 인한 세원 축소 및 광물 가격 하락 등 세입감소요인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 반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농업과 광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기후조건과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

- 볼리비아는 농업이 GDP의 11%('08), 노동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호한 기상조건과 다양한 토질로 생산 잠재력이 풍부함. 그러나 투자 및 기계화가 부족하고 기간시설이 취약하여 저개발 상태에 있으며, 농산물의 국제가격 변동과 기후 변화에 취약함.
- 천연가스와 원유는 볼리비아의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요인으로, 1997~2003년 FDI 총유입액의 1/2을 차지함. 국제 원자재 시세 상승으로 천연자원 관련 소득은 2003년 GDP의 3.4%에서 2007 8.3%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광업은 GDP의 12.9%('08)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재정수입의 50%가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시세 변동이 경제 전반과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함.

[성장 잠재력]

□ 자원국유화정책 추진으로 인해 천연가스산업 발전 전망 불투명

-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가로서 천연가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2008년 천연가스 수출액은 29.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8.3%을 차지하였음.
-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자본, 기술, 전문 인력 등을 외국기업에 의존해 왔으나, 2006년 5월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후 외국인투자기업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신규 투자도 크게 축소되어 향후 천연가스산업 발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정책성과]

□ 정부의 반시장적인 개입으로 구조개혁 정책 후퇴

-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자원국유화정책 등 정부의 반시장적인 개입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었으며, 거시경제 안정과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정책은 후퇴하고 있음.

- 아울러, 볼리비아는 세계 코카 생산의 30~40%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코카 생산국으로, 코카재배농민협회 회장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개헌 제384조를 통해 2009년 코카재배를 합법화하였음.
- 정부는 2006년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한데 이어 주요 광산은 물론 전화와 철도 등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국유화를 개헌안을 통해 합헌화 하여 관련 외국인 투자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622	1,317	1,591	2,015	749
경 상 수 지 / G D P	6.5	11.5	12.1	12.1	4.0
상 품 수 지	609	1,242	1,215	1,807	845
수 출	2,791	3,875	4,458	6,448	5,086
수 입	2,183	2,632	3,243	4,641	4,241
외 환 보 유 액	1,277	2,561	4,498	6,871	8,592
총 외 채 잔 액	6,908	5,799	4,947	4,814	5,061
총 외 채 잔 액 / G D P	72.4	50.6	37.7	28.9	27.7
D . S . R .	13.9	9.1	13.5	13.1	13.3

자료: IMF, EIU, OECD

□ 경상수지 흑자폭 급감

- 볼리비아는 시장개방과 열악한 국내 산업으로 인해 생필품, 자본재, 원부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왔으나,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볼리비아-브라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완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3년 이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됨.

- 2004~2007년 자원국유화조치, 국제광물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각각 8.7억 달러와 1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주요 수출원자재의 가격 상승 및 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각각 17억 달러, 22억 달러에 달함.
- 2009년은 1/4분기까지 이어진 광물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함과 동시에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경상수지 흑자폭은 전년도의 GDP 대비 12%에 비해 대폭 축소된 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외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

- HIPC 수혜에 이어 다자간외채감축구상(MDRI)에 따라 2006년에는 IMF,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의 채무 18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 받게 되어 외채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 2008년 말 현재 총외채/GDP 비중은 28.9%, D.S.R.은 13.1%로 최근 수년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도 2002년 69%대에서 2008년 3%대로 크게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외채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2009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되어 외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9년 말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85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 안정]

□ 역사적으로 정국불안 사태 반복

- 1825년 독립 이래 156년간 193회의 군부반란 및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1985년 이후 군부의 정치개입이 중단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왔으나, 천연가스산업 국유화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연이어 사임하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 2002년 8월에 집권한 친미 기업가 출신의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칠레를 통한 천연가스 수출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2003년 10월 전격 사임하였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카를로스 메사 부통령도 천연가스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재발하여 사임한 바 있음. 이후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음.

□ 좌파 성향의 에보 모랄레스 정부 출범

- 2005년 12월 18일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천연가스산업 국유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후보가 54%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어 원주민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에 취임함(2006년 1월).
- '볼리비아의 체게바라'로 불리는 모랄레스는 코카재배농민협회 회장 출신으로서 원주민의 권익 보호와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등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5월 1일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국내 주요 유전지대에 공병대를 투입하여 유전 통제권을 접수함.

- 모랄레스 대통령은 “외국 회사를 추방할 생각은 없지만, 그들이 볼리비아에서 예전처럼 많은 이익을 챙기지는 못하게 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한편, 광업과 임업 자원의 국유화와 토지분배 그리고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국제관계]

□ 인근 국가와의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

- 볼리비아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옵서버 국가이자, Andean Community(CAN)의 회원국이며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와 활발한 교역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고, 양국과의 관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과는 좌파 남미동맹의 축을 형성하며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친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칠레와는 연안 영토 관련 외교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태평양 전쟁(1879년~1883년)에서 칠레에 패해 해안 접근권을 상실한 볼리비아의 대 칠레 국민감정은 매우 나쁜 편임.

□ 반미 외교노선 추구

-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단속 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외교정책의 최우선을 두어 왔으나, 모랄레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베네수엘라-쿠바-에콰도르-볼리비아로 이어지는 남미의 반미좌파동맹에 적극 가담하고 있음.
 - 2008년 9월에 모랄레스 대통령은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 대해 야당 보수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외 퇴거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2009년 이후 안데안무역특혜법(ATPDEA)의 면세 혜택이 중단되었음.

- 2009년 11월에는 이란 대통령의 볼리비아 방문 시 이란과의 경제협력 협약, 볼리비아 광산 개발 MOU 체결 등 이란과의 협력 강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사회 안정]

□ 2009년 1월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와 지역 갈등

- 2007년 12월 여당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사유지 보유한도 규제, 원주민 권익향상, 에너지 산업 국유화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야당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음.
- 개헌안은 부유층이 집단 거주하는 주에서는 반대, 나머지 주에선 찬성하여 지역별로 찬반이 나뉘었으며, 60%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됨.
- 향후 개헌안의 법령 입법 및 실시 과정에서 참여한 대립과 적지 않은 사회적 진통이 예고되고 있음.

[소요사태]

□ 반정부 세력과의 충돌로 유혈 사태 발생

- 모랄레스 대통령의 자원국유화 및 부의 재분배 정책 방향에 대한 야당 및 부유층의 반발로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 9월에는 야권과 친정부 세력간의 충돌로 반정부 세력이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등 내전을 방불케 하는 유혈사태가 발생, 19명이 사망하는 등 정국 혼란이 지속됨.

-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산타크루스, 베니, 판도 등의 동부 지역에서는 정부 정책, 특히 개헌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며, 2008년 5월 주정부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 이를 통과시킨 바 있음.
- 이러한 유혈 사태 발생 이후 정부의 군사력이 동부 지역에 상시 주둔하고 있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12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이 공영방송과 공적 선거자금 사용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여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S&P : B('03.2월) → B-('03.10월)
- Moody's: B3('03.4월) → B2('09.9월)
- Fitch : B-('04.3월) → B('09.9월)
- OECD : 7등급('08.6월) → 7등급('09.7월)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인수 불가
- ECGD : 단기 인수, 중기 제한적 인수
-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

□ HIPC 수혜국으로 외채부담 경감

- 1980년대 이후 공적채무 7회, 상업채무 5회의 채무재조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등 수차례의 외채위기를 경험한 HIPC 국가임.

-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의 신규차입 및 기존채무의 리스케줄링과 1998년에 HIPC 외채경감계획에 따라 7억 6,000만 달러의 공공채무탕감을 받음.
- 또한 2000년 2월 Enhanced HIPC 수혜를 위한 심의시점을 통과한 데 이어, 2001년 6월 완결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함.
- 이에 따라, 다자기구외채탕감구상(MDRI)에 따라 세계은행으로부터 외채 약 18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 받았으며, 2007년 미주개발은행(IDB)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탕감 받음.

□ 모랄레스 정부와 채권단의 긴장관계 형성

- 볼리비아는 국제금융기관 및 파리클럽과의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양호한 평가를 받아 왔고 외채상환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아 왔음.
- 그러나 모랄레스 정부 출범 이후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등 사회주의 성향의 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 국제기구와 일부 채무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볼리비아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1~8월)	주요품목
수 출	10,191	15,112	10,645	계측제어분석기, 자동차
수 입	182,013	202,540	62,183	아연광, 기타금속광물
합 계	192,204	217,652	72,828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5. 4. 25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71), 경제·기술협정('86), 투자보장협정('96)
- 해외직접투자(2009년 9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1건, 63,171천 달러

V. 종합의견

- 볼리비아 경제는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 이후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호조가 지속되어 2008년까지 4-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09년에도 적극적인 정부 부양책 및 원자재 가격의 회복세 전환 등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자원국유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미국 및 남미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감소, 주력 수출품의 생산성 감소 등으로 중기적으로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임.
- 모랄레스 대통령의 국유화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2009년 1월 국민투표를 통과한 이후 경제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반정부세력과의 충돌 등으로 정국 불안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및 인종간 빈부격차, 치안불안, 마약문제 등의 사회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볼리비아는 외채, D.S.R. 외환보유액 등 대부분 유동성 지표들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인 7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여타 국제신용기관들의 평가도 투자부적격 등급에서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 당행의 평가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D2를 부여코자 함.